

# 영암군 조직개편... 주민복지·투자유치 중점

34기구 142팀서 32기구 147팀으로... 교통민원팀 신설

부읍장·부면장 폐지하고 읍·면장에 팀장 배치 권한 위임

영암군이 민선 6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34기구 142팀'을 '32기구 147팀'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민선 6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정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직급을 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 핵심부서로의 위상을 정립했다. 또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재편해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복지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중전 지역경제과를 투자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상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다음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교통민원팀을 분리, 신설함으로써 전통령 군수의 핵심 공약인 '100원 택시'와 '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테크노폴리스 팀을 산단 관리팀, 산단 시설팀, 산단 지원팀을 갖춘 5급 직제의 테크노폴리스 사업소로 승격시킴으로써 대불 국가산단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능 쇠퇴부서와 사업소를 통·폐합해 작은 조직 구현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홍보교육과를 신

설, 정보문화센터와 종합 사회복지관을 통합해 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을 총괄토록 했으며, 기존의 문화유적 관리사업소에 도기 박물관과 하(河)미술관 등 관련성 있는 부서를 흡수해 문화시설사업소로 확대 재편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 2012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도입했던 부읍·면장제는 의사 결정단계 추가로 민원처리 지연과 연공서열 경력자 배치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했다. 대신 읍·면장에 팀장 요원의 배치 권한을 위임해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와 규제개혁, 재난관리 업무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팀을 정식 직제에 포함시켜 과감한 규제정비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개발팀을 신설해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대체작목 개발 및 신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민선 6기 공약사항과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자리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전환하는 능동적인 고효율 조직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군정안 밖에서는 "군정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기획조정실장 자리가 과거처럼 연공 서열에 따라 임명되는 인사행태가 반복된다면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린 군수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연말 예정인 정기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강진 다산기념관 전문박물관 등록

2층 규모 건물 신축·전문 학예인력 배치 심사 통과

지난 7월 개관한 강진군 다산기념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다산기념관은 강진이 다산실학의 성지로서 정약용(1762~1836) 선생의 실학사상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 기존 유물전시관이 있지만 전문 학예인력과 수장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도암면 만덕리 부지에 총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다산기념관을 신축하고, 전문 학예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문박물관 등록에 대비해 왔다.

다산기념관은 박물관이 갖춰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28일 전남도로부터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전시실은 다산의 출생과 성장, 수학과 관료생활, 유배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저술 자료 등을 갖추고 다양한 디지털 자료와 3D 상영관, 다산 선생의 친필 간찰 등 진품 유물들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내년부터 다산기념관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윤재 관장은 "다산의 사상이 체험 프로그램과 다산의 유물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산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완도축협 한우개량 사업소 개소

강진지역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갈 한우개량사업소가 완공돼 맞춤형 한우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진완도축협은 총사업비 3억여원을 투입해 최근 적 327㎡(지상 2층 건물) 규모의 한우개량 사업소를 준공했다.

1층은 출하·가축시장·사료관리·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등 기본업무를 담당하고, 2층은 한우개량 전산시스템 관리·맞춤형 수정사업·질병관리·지도 컨설팅·방역·공동방제단 업무를 맡는다.

특히 한우 검정사업, 한우등록, 심사 등 한우개량 기초사업부터 관련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우수한 형태의 정육을 확보해 지역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실질적인 한우개량사업도 추진한다.

또 그동안 각 기관에서 따로 관리하던 한우개량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기관간 자료 송·수신체제를 구축해 송어지 생산 안정제, 한우개량농가 육성, 종축 등록, 등급 판정, 유전능력 평가 자료도 통합 관리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산림경영 규제 대폭 완화

## 자영독립가 산림규모

### 15ha서 10ha 이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에 따라 자영 독립가 요건도 '가능인 영림단'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6일 서부지방산림청 영암 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지난 9월 '입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영 독립가 요건이 산림경영 규모 15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능인 영림단 인력도 '산림 경영기술자 가능2급 이상 비율 60% 이상'에서 '구성원수 11명이상인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독립가 선정기준이 산림경영면적 10ha 이상으로 완화돼 자금이나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암 국유림관리소 박영길 경영지원팀장은 "이번 산림분야 규제 완화에 따라 자영 독립가들의 산림경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입업분야 기능인력의 취업 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시·군의 조립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인 영림단' 역시 더욱 쉽게 편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장흥군 친환경 미생물 퇴비 공급

장흥지역 농업인들이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연간 250t 생산 규모)을 견학하고 있다. 장흥군은 친환경농업 기반확대를 위해 유산균과 고초균, 토착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 6종을 매일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장흥군 제공>

# 영암군 동절기 위기가정 긴급복지 선제적 지원

## 홍보·복지사각 발굴 총력

영암군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에 나선다.

영암군은 지난 5일부터 11개 읍·면에 일제히 '긴급복지 지원신청' 플래카드를 부착, 제도 홍보를 시작으로 위기가정 발

굴과 함께 읍·면 복지담당자를 통한 현장 행정을 확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10월 사회안전망인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복지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위기가정 발굴에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 위기가정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수도·가스·전기·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가구원 간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채로 인해 최근 6개월 평균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등이 추가되는 등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문의 영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 지원팀(061-470-2068),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영암=대성수기자 dss@

# 장흥경찰 강력팀 '베스트 형사팀' 인증

전남 13개 경찰서중 5대 범죄 검거 성과 1위

장흥경찰 형사팀(사진)이 전남경찰 '베스트 형사팀' 인증을 받아 화제다.

장흥경찰서(서장 김철우) 수사과 강력팀이 최근 전남경찰청 산하 13개 경찰서 가운데 5대범죄 검거현황 및 사건난 이도 평가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백승호 전남 경찰청장으로부터 베스트 형사팀(7명) 인증패를 받았다.

수사과 강력팀(팀장 김재선)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4분기 동안 상습적으로 농촌 빈집만 골라 금품 등을

절취해온 절도범과 상습 주취폭력자 등 지역정서를 흐리게 한 어려운 사건 등 총 25건에 달하는 강·절도범 검거실적을 올렸다.

장흥경찰서 관계자는 "3급 경찰서의 열악한 환경과 날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장흥경찰 수사과가 범죄자 검거에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것은 사기 저하로 위축된 형사경찰들에게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

###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전체올수리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